

공동체 기도

1. 뉴저지초대교회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2. 일터와 삶터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3. 공동체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4.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5.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모든 영적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6. 공동체 새로운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각 사역부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 일정

- 10월 27일(주일) : 11월 순장교육, 장애인과 함께 하는 주일  
 10월 31일(목) : Fall Festival  
 11월 2일(토) : 일대일 양육자 컨퍼런스  
 11월 24일(주일) : 추수감사주일, 공동체 Together

#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21 편 1-8 절

알리는 말씀

1. 2019년 교회 표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교재나눔/기도제목나눔
  -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순교재 내용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10/25 향유공동체, 11/1- 옥합공동체, 11/8 - 26공동체, 11/15- 영커플 공동체, 11/22 - 21공동체
4. 가족 순예배 교육은 10/27일 3pm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순교재 다운로드 항목에 자녀를 위한 순교재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가족순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 로비에 비치됩니다.
7.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21 편 1-8 절)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 오 신실하신 주(새찬 393 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Focus,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시편 121 편 1-8 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시편 121 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두번째 시입니다. 시인은 마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요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9 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후, 이 시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주인공 마리아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라고 고백하며 함께 알프스 산맥을 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는 편안한 소파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시는 기본적으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시인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또는 제사장과 예배자의 대화로 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때, 지도자(아버지, 제사장)와 순례자 사이의 대화를 통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면 이 시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인의 공동체는 시온에서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흩어진 사람들)로서 시온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출발하고 있으며,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것을 간구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시인은 첫째 단락(1-2 절)에서 순례자의 여정에서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고백하나요?(3-4 절)

3. 시인은 여호와께서 순례자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나요? (5-6 절)

### 적용과 나눔

1.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7 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환난 중에 지키셨던 사건을 기억해 보고, 또 나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주신 은혜를 나눠봅시다.

2.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출입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소중한 나의 삶터와 일터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눠봅시다. 신앙공동체는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서로를 서로에게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 > 말씀 다지기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마침내 성전에 올랐을 때, 순례자의 공동체의 믿음과 영성도 한층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신앙공동체는 하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천국백성으로서 함께 올라갑니다. 축제와 절기의 거룩한 리듬을 갖고 함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높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순례자의 남은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우리의 발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시온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또한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주소서.

**마음에 새기기 |**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 편 8 절)